

# 로 마 서

기록자: 바울, 기록 시기: 주후 57년경, 성격: 교리

수신자: 일차적으로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고 실제적으로는 모든 신자

이름: 이 서신의 이름은 바울이 편지를 쓴 로마 교회에서 유래되었다(1:7).

바울은 로마를 방문하기 원했으며 그곳의 성도들이 이 편지를 통해 자기의 방문을

예비하기 원했다. 이 편지는 겐그레아 교회의 여종인 뵈베의 손을 통해 로마

교회에 전달되었다(16:1-2). 그 당시 로마 교회는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세운 것으로 보인다. 바울 당시에 로마는 전 세계의 중심

도시였고 네로가 황제로 있었다. 주제: 하나님의 의를 보여 주는 복음

목적: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아 의롭게 된다.”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확증하는 것, 내용: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자연의 빛이나 그것에 순종하기 위한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 의롭게 되는 칭의 교리를 가르친다. 또

유대인들에게는 모세의 율법이나 율법의 행위에 의해 구원받을 수 없음을 보여

준다. 그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죄악과 사악함 그리고 비참함을 보여 주고 하나님의

의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 그들에게 은혜로 전가될 수

있음과 구원의 효과로 나타나는 화평과 기쁨(5장), 거룩한 삶(6장)을 보여 주며

자신의 경험을 통해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죄가 있음을 보여 주고(7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정죄함이 없음과(8장) 자신의 친족인

육적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열망과 하나님의 계획(9-11장) 그리고 그리스도인

의 삶 속에 나타나는 성령님의 권능(12-16장)을 보여 준다. 로마서는 16장,

433절, 9,422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3장(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핵심 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

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1:16), 핵심

단어: 의(66회), 믿음(62회), 칭의(17회), 인정(19회), 그리스도 안에(33회),

율법(78회), 죄(60회), 핵심 구: “하나님의 의”(1:17), 로마서의 그리스도: 우리

의 의가 되신 주님(10:4; 롬23:6), 영적 교훈: “하나님의 의를 입으라.”

## 제 1 장

### 인사

1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 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2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3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다.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4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5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믿음에 순종하게 하였나니

6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7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 방문 계획과 소원

8 먼저 너희 모두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하나님께 감사

하노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두루 전하여졌기 때문이다.

9 내가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가 기도할 때에 언제나 너희에 관하여 끊임없이 말하며

10 어찌하든지 이제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탄한 여정을 얻어 너희에게 가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11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은 내가 너희에게 어떤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어 너희를 굳게 세우고자 함이니

12 이것은 곧 너희와 나 사이의 공통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 위로를 받고자 함이라.

13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도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처럼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이제껏 막혔도다.)

14 나는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빛진 자니라.

15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나는 또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16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 다.

17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불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18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19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21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23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 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5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그분은 영원히 찬송 받으실 분이시로다. 아멘.

26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27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불 일 듯 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28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29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요,

30 뒤에서 헐뜯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신여기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31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의 애정이 없는 자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

32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니라.

## 제 2 장

###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1 그러므로, 오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들을 행하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 네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다.

2 그러나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3 오 그런 일들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4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네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5 다만 네가 네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닥칠 진노를 네게 쌓아 올리는데도 다.

6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7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고

8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격노와 진노로 갚으시리라.

9 악을 행하는 사람의 모든 혼 위에 환난과 곤고가 닥치리니 먼저는 유대인의 혼 위요 또한 이방인의 혼 위이며

10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화평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로다.

11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12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또한 다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다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니

13 (이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아니하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14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 있는 것들을 행할 때에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15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시니라.)

16 *이런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 날에 *이루어지리라.*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처럼 유죄임

17 보라, 네가 유대인이라 불리며 율법 안에 안주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18 율법에서 가르침을 받아 그분의 뜻을 알고 훨씬 더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19 또 너 스스로 눈먼 자들의 안내자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요,

20 율법에 있는 지식의 틀과 진리

의 틀을 갖춘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의 스승이요, 아기들의 교사라고 확신하는도다.

21 그런즉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사람이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고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22 사람이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들을 몹시 싫어하는 네가 신전 물건을 몰래 취하느냐?

23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24 이것은 기록된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 율법과 할례

25 네가 율법을 지키면 할례가 참으로 유익하나 네가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면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나니

26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의를 지키면 그의 무할례를 할례로 여겨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27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이행하면 글자와 할례를 통해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하지 아니하겠느냐?

28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라.

29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글자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니라. 이런 사람에게 대한 칭찬은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 제 3 장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함을 변호함

1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나? 혹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나?

2 모든 면에서 많으니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것이다.

3 그런데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효로 만들겠느냐?

4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이것은 기록된바, 이로써 주께서 주의 말씀하신 것에서 의롭게 되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시리이다, 함과 같으니라.

5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으로서 말하노니) 보복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6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7 만일 내 거짓말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풍성하게 되어 그분이 영광을 얻게 되었다면 어찌하여 내가 여전히 또한 죄인으로 심판을 받느냐?

8 차라리 (우리가 중상모략을 당하듯이 또 어떤 자들이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주장하듯이), 선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악을 행하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정죄 받는 것이 옳으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임

9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검증하여 그들이 다 죄 아래 있음을 입증하였느니라.

10 이것은 기록된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11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12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13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쓰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14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15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므로

16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어

17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18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19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어떤 것들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20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의

21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22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23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25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26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에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한 하나님

27 그런즉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

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28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29 그분은 오직 유대인들의 하나님 이시냐? 그분은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참으로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시니

30 할례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무할례자를 믿음을 통해 의롭게 하실 분은 한 하나님이시니라.

31 그런즉 우리가 믿음을 통해 율법을 헛되게 만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 제 4 장

율법 이전 시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됨

1 그러면 육체에 관한 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발견했다고 우리가 말하리요?

2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3 성경 기록이 무어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느니라.

4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5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율법 시대:

다윗이 믿음으로 의롭게 됨

6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하여

7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

며

8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은 할례 전에 의롭게 됨

9 그러면 이 복된 일이 할례자에게만 임하느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 임하느냐? 이는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의로 간주하셨다고 우리가 말하기 때문이다.

10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의로 간주하셨느냐? 그가 할례 받은 때였느냐, 할례 받지 않은 때였느냐? 할례 받은 때가 아니요, 할례 받지 않은 때니라.

11 그가 할례의 표적 곧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에 그가 소유한 믿음의 의를 봉인한 표적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이었으나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어 의가 그들에게도 인정되게 하려 함이요,

12 또 할례자들에게 속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에 소유한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자들에게 할례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약속은 믿음을 통해 주어짐

13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려고 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나 그의 씨에게나 율법을 통해 주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의를 통해 주어졌느니라.

14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되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그 약속은 효력을 잃게 되느니라.

15 이는 율법이 진노를 이루기 때문이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16 그러므로 그것이 은혜로 되게 하려고 믿음에서 나나니 그 목적은 그 약속을 모든 씨에게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은 곧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 그 약속을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니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

17 (이것은 기록된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그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18 그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면서 믿었으니 이것은, 네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신 것대로 그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19 그가 백 세쯤 되었을 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20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22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23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다고 기록된 것은 이제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24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을 믿을진대 그것을 의로 인정받을 우리도 위한 것이니라.

25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 제 5 장

믿음은 고난 중에서 승리함

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노다.

2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3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4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5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6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전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7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8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9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10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대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11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았으며 그분을 통해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느니라.

아담과 그리스도

12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13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4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균림하였는데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

15 그러나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은 또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을진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이니라.

16 또 이 선물은 죄 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으나 많은 범죄로 인한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칭의에 이르기 때문이니라.

17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균림하였을진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균림하리라.)

18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

19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20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

21 이것은 죄가 균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균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 제 6 장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산다

1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2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

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3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4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견게 하려 함이라.

5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6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떨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7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8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9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상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10 그분께서는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나 살아 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시나니

11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이다.

12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13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14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15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6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17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였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18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19 너희의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20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로부터 자유로웠느니라.

21 그런즉 너희가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 안에서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22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23 죄의 값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 제 7 장

율법에서 벗어남

1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

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2 남편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 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3 그런즉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 있을 때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부(姦婦)라 불릴 터이나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서 해방되나니 그러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간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4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함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5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6 우리를 붙들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고 글자의 낡은 것 안에서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7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8 그러나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서 온갖 종류의 욕정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기 때문이다.

9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내가 살아 있었으나 명령이 오매 죄가 되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10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정하신 명령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인 줄 내가 알았나니

11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12 그런즉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다.

율법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13 그러면 선한 그것이 내게 사망을 이루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을 통해 내 안에서 사망을 이루었나니 이것은 죄가 명령을 통해 넘치도록 죄로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14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15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 즉 그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 즉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16 그런즉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대해 내가 율법에 동의하노니

17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18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19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다.

20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21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

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23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24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

25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 제 8 장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음

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2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3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4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5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나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6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8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9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10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11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을 통해 양자 됨

12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빛진 자로되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빛지지 아니하였느니라.

13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14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 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15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16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7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고난에서 영광으로

18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될 수 없도다.

19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

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20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요,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21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22 또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23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24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25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26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27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니라.

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9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끝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31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33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34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35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 놓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36 이것은 기록된바, 우리가 종일 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합과 같으니라.

37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38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39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 놓지 못하리라.

## 제 9 장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배척함

1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 하거니와

2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3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4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심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속해 있고

5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 하나님의 목적

6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상실한 것 같지 아니하니 이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7 또한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이들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이삭 안에서 네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8 곧 육체의 아이들이나 자들 즉 이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 아니요 오직 약속의 아이들이 그 씨로 여겨지느니라.

9 그 까닭은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기 때문이라. 곧, 이때에 내가 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셨느니라.

10 이뿐 아니라 리브가도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으로 말미암아 수태하였는데

11 (그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으되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12 그때에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

르시되,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셨나니

13 이것은 기록된바, 야곱은 내가 사랑하되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 하나님의 공의

14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결코 있을 수 없느니라.

15 그분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공흠을 베풀 자에게 공흠을 베풀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시나니

16 그런즉 이와 같이 그것은 원하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달리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며 오직 공흠을 베푸시는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17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내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너를 일으켰나니 이것은 내가 네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두루 밝히 알리려 함이니라, 하시나니

18 그런즉 그분께서 공흠을 베풀 자에게 공흠을 베풀시고 또 강퍽하게 할 자를 친히 *강퍽하게* 하시느니라.

19 그러면 내가 내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분께서 여전히 허물을 찾으시느냐?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였느냐? 하리니

20 아니라, 오 사람아, 내가 누구 이기에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어진 것이 자기를 지은 이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소, 하겠느냐?

21 토기장이와 같은 덩어리의 진흙으로 한 그릇을 만들어 존귀에 이르게 하고 다른 하나를 *깎들어* 수치에 이르게 할 권한이 없겠느냐?

22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고 자신의 권능을 알리기 위해 파멸시키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에게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고

23 이로써 영광에 이르도록 자신

이 미리 예비한 공훈의 그릇들에게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려 하셨을진대 무슨 말을 하리요?

24 이 그릇들은 곧 우리나 즉 그분께서 유대인들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이니라.

25 이것은 그분께서 호세아의 글에서도 이르시되,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며 사랑받지 못하던 그녀를 사랑받는 자라 부르리라.

26 또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곧 거기에서 그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리리라, 함과 같으니라.

27 또한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쳐 이르되,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28 그분께서 그 일을 끝마치시고의 안에서 그것을 단축(短縮)시키시리니 이는 단축된 일을 주께서 땅 위에서 이루실 터이기 때문이라, 하느니라.

29 이것은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씨를 남겨 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되었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

30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의 곧 믿음에서 난 의에 이르렀으나

31 의의 법을 따른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32 무슨 까닭이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은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느니라.

33 이것은 기록된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 제 10 장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함

1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2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3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5 모세가 율법에서 난 의를 묘사하되,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거니와

6 믿음에서 난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나니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에서부터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7 혹은, 누가 깊은 속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나니 (이것은 그리스도를 다시 죽은 자들로부터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8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9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10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1 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

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니

12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니

13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이 복음을 배척함

14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나! 함과 같으니라.

16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는 아니하였나니 이사야가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느니라.

17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18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참으로 들었은즉, 그것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19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는 이르기를, 내가 백성이 아닌 자들을 시켜 너희의 질투를 일으키며 어리석은 민족을 시켜 너희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리라, 하나

20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이르기를,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들이 나를 발견하였나니 내게 묻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내가 나타났노라, 하되

21 오직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가 종일도록 내 손을 내밀어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백성을 향하게 하였노라, 하느니라.

## 제 11 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않음

1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니라.

2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 기록이 엘리야에 대해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하나님께 증보하여 이르되,

3 주여, 그들이 주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들을 파헤쳤으며 나만 홀로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도 찾나이다, 하나

4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답이 무어라 말하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칠천 명을 남겨 두었노라, 하나니

5 그런즉 이와 같이 이 현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6 만일 은혜로 된 것이라면 그것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라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7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은 자기가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으나 선택 받은 자는 얻었고 그 나머지는 이 날까지 눈멀게 되었으니

8 (이것은 기록된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도다, 함과 같으니라.)

9 또 디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울무와 함정과 걸림돌과 보

응이 되게 하시고

10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등이 항상 굽게 하소서, 하느니라.

이스라엘의 실족으로 인한 결과

11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지게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려 함이니라.

12 이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그들의 쇠퇴함이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많이 부요함이 되겠느냐?

13 내가 이방인들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인 만큼 내 직무를 존귀히 여기나니

14 이것은 내가 어찌하든지 내 살붙이인 그들을 자극하여 경쟁하게 함으로 그들 중의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15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을 화해시키는 것이 되거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16 첫 열매가 거룩하면 덩어리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그러하니라.

17 또한 그 가지들 중에서 얼마가 꺾이고 야생 올리브나무인 내가 그들 가운데 접붙여져서 그들과 함께 올리브나무의 뿌리와 기름짐에 참여하게 되었을진대

18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지탱하지 아니하며 뿌리가 너를 지탱하느니라.

19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그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내가 접붙여지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20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꺾였고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있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21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을진대 그분께서 또한 너를 아끼지 아니하실까 조심하라.

22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을 보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엄하심이 있으나 내가 그분의 선하심에 거하면 너를 향하여는 선하심이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잘려 나가리라.

23 그들도 여전히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여지리니 하나님은 능히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느니라.

24 내가 본래 야생 올리브나무에서 잘려 본성에 역행하며 좋은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졌을진대 하물며 본래의 가지인 이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자신의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지겠느냐?

이스라엘의 최종 구원

25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먼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26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27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에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28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해 원수 된 자들이지만 선택에 대하여는 그들이 조상들로 인해 사랑받는 자들이니

29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30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통해 공휼을 얻었나니

31 이와 같이 이 사람들 또한 이제

믿지 아니한 것은 너희가 얻은 공훈을 통하여 그들도 공훈을 얻게 하려 함이라.

32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아니하는 데 가두어 두신 것은 친히 모든 사람에게 공훈을 베풀고자 하심이라.

33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34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되었느냐?

35 누가 그분께 먼저 드러서 다시 보답을 받겠느냐?

36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 제 12 장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 희생 제물

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공훈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 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2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영적 선물

3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4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나니

5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이니라.

6 그런즉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대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하고,

7 혹은 사역이면 우리가 우리의 사역하는 일로 섬기며,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고,

8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섬기며,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훈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의 생활

9 사랑에 꾸밈이 없게 하라. 악한 것을 몹시 싫어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10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11 일을 게을리 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12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13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14 너희를 뽐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5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

16 서로를 향해 같은 생각을 가지며 높은 것들에 생각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17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18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19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 하심에 맡기라. 기록된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20 그러므로 네 원수가 주리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네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21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 제 13 장

###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력

1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2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3 치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그런즉 네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바로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4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네게 선을 베푸느니라. 그러나 네가 악한 것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차지 아니하나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보복하는 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느니라.

5 그러므로 너희는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반드시 복종해야 하느니라.

6 이런 까닭에 너희가 공세도 받지 아니하니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7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을 것을 주되 공세 받을 자에게 공세를, 관세 받을 자에게 관세를, 두려워할 자에게 두려움을, 존경할 자에게 존경을 주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8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빚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

였느니라.

9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어떤 다른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 있느니라.

10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11 또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12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14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 제 14 장

### 자유인

1 믿음이 악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은 하지 말라.

2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약하여 채소를 먹느니라.

3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아니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느니라.

4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의 서거나 넘어짐이 그의 주인에게 달려 있는즉 참으로 그가 세워지리니 하나님은 능히 그를 서게 하실 수 있느니라.

5 어떤 사람은 한 날을 다른 날보다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은 모든 날을

같이 여기나니 각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완전히 확신할지니라.

6 날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날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지 아니며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때문이라.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하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리느니라.

7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8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9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10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11 기록된바, 내가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에게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12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13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 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을 것을 판단할지니라.

#### 사랑의 법

14 내가 알고 또 주 예수님을 통해 확신하거니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하나도 없으며 어떤 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부정하니라.

15 그러나 만일 네 음식물로 인해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제 네가 사랑으로 걷지 아니하나니 네 음식물

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말라.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16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17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18 이것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니라.

19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서로를 세워 주는 데 필요한 일들을 따를지니라.

20 음식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망하게 하지 말라. 모든 것이 참으로 순수하되 실족하게 하며 먹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악하니라.

21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즙도 마시지 아니하며 네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거나 약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선하니라.

22 네게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위해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허용하는 그것으로 인해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복하도다.

23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받나니 이는 그가 믿음을 따라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 제 15 장

### 악한 자들을 도우라

1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악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2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 주어야 할지니라.

3 기록된바, 주를 모욕한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4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5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서로를 향해 같은 마음을 갖게 하사

6 너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7 이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으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8 이제 내가 말하거니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핏줄자들의 사역자가 되신 것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확증하려 하심이다.

9 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니 이것은 기록된바, 이런 까닭에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를 시인하며 주의 이름을 향해 노래하리이다, 함과 같으니라.

10 또 다시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희 이방인들아, 그분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하시며

11 또 다시, 너희 모든 이방인들아, 주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분을 찬미할지어다, 하시고

12 또 다시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이방인들을 통치하기 위해 일어날 자가 있으리니 이방인들이 그를 신뢰하리라, 하느니라.

13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는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사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복음 선포

14 내 형제들아, 나 스스로 또한 너희에 대하여 확신하거니와 너희 역

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충만하여 능히 서로를 훈계할 수 있느니라.

15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기억하도록 내가 어떤 부분에서 더욱 담대히 너희에게 썼나니

16 이것은 내가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제공함으로써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이 성령님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어 주께서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17 그러므로 내게는 하나님께 속한 그 일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랑할 것이 있나니

18 이는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말과 행위로,

19 능력 있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이루신 그 일들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다니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히 선포하였노라.

20 참으로 이같이 내가 복음을 선포하고자 애써 왔으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21 오직 이것은 기록된바, 그에 대하여 전해 듣지 못한 자들이 보며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 방문 계획

22 이러한 까닭에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는 것이 많이 막혔으나

23 이제는 이 지방에 더 이상 일할 곳이 없고 또 이 여러 해 동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큰 소원이 내게 있어서

24 언제든지 내가 스페인으로 여행하게 되면 너희에게 가고자 하노라. 만일 내가 먼저 너희와 사귄으로 다소 채워질 수 있다면 나의 여행 중에 너희

를 보기 바라고 또 너희가 나를 거기로 보내 줄 것을 바라노라.

25 그러나 지금은 내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26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얼마를 기부함으로 기뻐하였기 때문이다.

27 참으로 그 일로 인해 그들이 기뻐하였느니라. 또한 그들은 저들에게 빛진 자들이니 만일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들에 참여한 자가 되었거든 육신의 것들로 저들을 섬기는 것도 그들의 의무이니라.

28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행하고 이 열매를 봉인하여 그들에게 준 뒤에 너희에게 들려서 스페인으로 가리라.

29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을 충만히 가지고 갈 줄로 확신하노라.

30 형제들아, 이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령의 사랑으로 인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기도 가운데 나와 함께 분투하며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여

31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구출 받게 하며 또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아들이게 하고

32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가서 너희와 함께 새 힘을 얻게 하라.

33 이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 제 16 장

### 뵈베를 추천함

1 내가 겐그리아에 있는 교회의 중 우리의 자매 뵈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2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의 마땅한 도리로 그녀를 받아들이고 무슨 일에서든지 그녀가 너희를 필요로 하거든

그녀를 도울지니라. 그녀가 많은 사랑과 나의 구조자가 되었느니라.

성도들에게 인사 요청

3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협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인사하라.

4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5 또한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인사하라. 내가 매우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가야에서 그리스도께 첫 열매가 된 자니라.

6 우리를 위해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인사하라.

7 내 친족이요, 나와 함께 갇힌 자들인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 가운데서 주목 받고 있으며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느니라.

8 주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인사하라.

9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협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10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볼로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문안하라.

11 내 친족인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 있는 나기수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인사하라.

12 주 안에서 수고하는 드루배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13 주 안에서 선정된 루포와 그의 어머니 곧 나의 어머니께 문안하라.

14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마와 바드로바와 허메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15 빌롤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16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

하라.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17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18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씀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19 너희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널리 알려졌으므로 내가 너희로 인해 기뻐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선한 것에 대해서는 지혜롭고 악에 관해서는 순진하기를 내가 여전히 원하노라.

20 평강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의 친구들의 인사

21 내 동역자 디모데와 내 친족들인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22 이 서신을 기록한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23 나와 온 교회를 접대하는 자 가이오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도시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또 형제 구아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2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송축함

25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에 따라 권능으로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즉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은밀히 간직되어 왔으나

26 이제는 밝히 드러났으며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통해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지게 된 신비의 계시에 따라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27 곧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 로마 사람들에게 고린도에서 써서 겐그레아에 있는 교회의 중 뵈베편에 보낸다.